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김창배 연구위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2018. 12

YDI Report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1. 2019년 대외여건 전망

□ 세계경제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 위축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감세 등 세계개편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 중 경기확장국면이 고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은 통화완화 정책 종료,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일본은 미·중 통상마찰 피해,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성장률 하락 전망
 -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정책대응 등으로 성장세가 6%대 초반으로 둔화될 전망
 -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나 선진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국제유가

- 내년 국제유가는 평균적으로 금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초과공급)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원유수요가 하향하는 가운데 美 세일오일 증산 등 견조한 생산세로 공급초과 상황 예상
 - (산유국 불협화음) 감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유국간 이행상충 심화,

美의 시장 점유율 잠식 등으로 이행여부 불확실

- (투기유인 감소) 금융상품의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유선물 숏 포지션 증가를 초래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국제 환율

○ 미 달러, 강·약세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강보합 가능성

- 강세 요인 : 미·중 무역분쟁 지속, 기준금리 인상 기조,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 약세 요인 : 미 경기둔화에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 조절,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약세 유도,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동참 등

○ 중국 위안, 완만한 약세를 보일 전망

- 중국경제 여건, 중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 등을 종합할 때 당분간 위안화 가치의 하락세는 진정될 전망

- 수출둔화 위험 대응차원에서 완만한 위안화 약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역내 자금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약세 방어도 중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2. 2019년 국내경제 전망

□ 대내여건

○ 2017년 4월 이후 경기하강국면 진행 중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101.0)을 정점으로 하락, 12월 이후 기준선(100)을 지속적으로 하회

○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수단도 한계

- (재정정책) 슈퍼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복지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재정승수는 크지 않을 소지
- (통화정책) 성장둔화, 고용부진, 부채부담 증가라는 인하요인과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 등 인상요인의 딜레마 속에서 경기부양 운신의 폭 제약
- (환율정책)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경계 등으로 경기 대응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민간 소비

- 경기둔화,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경기둔화, 자산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지속
- 해외소비 증가, 고령화 대비한 저축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 확대의 민간소비 보완, 보충 역할 한계

□ 설비투자

- 경기둔화로 인한 설비확장 수요 약화, 기업투자 환경 악화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그나마 투자를 지탱해온 반도체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올해 일단락 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도 하향추세로 전환되면서 신규투자 유인 감소

-
- 親노동적 정책(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 건설투자

- 주택 초과 공급, SOC예산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더 확대될 전망
 - 지난 수년간 대규모 주택투자로 물량부족 상당분 해소
 - 경제 전망 하향, 주택수요 억제 정책 등으로 수요 위축
 - SOC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토목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성장
 - 한편 건설투자와 건축허가면적의 시차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내년까지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수출

-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수출 모멘텀 약화로 증가세 둔화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중, 대미 수출 둔화 불가피
 - 반도체 사이클 하강,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편중' 한국 수출의 위기감 고조
 - 중국의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요인

□ 성장률

- 한국 경제는 올 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3%로 크게 낮아질 전망
 - OECD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망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

□ 고용

-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유의미한 고용 개선 어려움
 -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증가 둔화에 따른 제조업 고용부진, 건설투자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건설업 고용 감소 예상

□ 소비자 물가

- 총수요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물가 목표치 2%를 하회할 전망
 - 낮은 총수요 압력이 최저임금 인상, 환율 상승의 효과를 상쇄
 - 더구나 국제유가가 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어서 물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시장금리

-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 하지만 중장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상승 폭은 기준금리 인상 폭에 미치지 못할 전망

□ 원/달러 환율

○ 달러대비 소폭 약세

-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내년 원/달러 환율의 상승(원화 약세)압력으로 작용
 - 특히 대북이슈에서 한·미간 입장 차이가 갈등으로 부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심리가 불안해질 소지
- 다만, 내년 중반 이후 미 금리인상 속도조절 등으로 달러 강세가 약화되면서 원화 약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

2018~2019년 국내경제전망(요약)

	2017	2018	2019
국내총생산(실질, 전년비 %)	3.1	2.6	2.3
민간소비	2.6	3.0	2.8
건설투자	7.6	-3.5	-4.5
설비투자	14.6	-1.7	-2.1
지식생산물투자	3.0	2.4	2.9
재화및서비스 수출	1.9	3.5	3.2
재화및서비스 수입	7.0	1.0	-1.1
소비자물가(전년비 %)	1.9	1.6	1.8
취업자 증감(천명)	316	105	95
국고채 3년 금리(%)	1.8	2.1	1.9
환율(원/달러)	1,131	1,100	1,120

자료: 여의도 연구원

3.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국경제의 과제

○ 총수요대책을 통한 경기침체 대응

-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
-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대한 기업 지원 노력 필요
 -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투자부문 활력 제고
 - 네거티브 규제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신성장동력 투자 유도
 -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건설투자의 과도한 위축 방지
 - 소비증가세 유지
 - 인위적 임금상승을 지양하고 쉬운 고용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진작정책
 - 최저임금 차등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책 대전환 필요
 -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한 금융 및 외환부문 안정성 확보
 -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주력하되 금리인상은 자제
 - 외국인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對북한 한·미관계의 확고한 포지션 유지
-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정책은 ‘Back to the Basic’
-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정책 대신 ‘i 노믹스’를 성장정책으로 제시
 - 이는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하도록 하자는 것
 - 규제, 나태, 의존에 발목이 잡혀 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마음껏 뛰도록 하자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성장정책

《 목 차 》

제목 차례

1. 2019년 대외여건 전망	1
(1) 경제성장	3
(2) 국제유가	8
(3) 국제환율	10
2. 2019년 국내경제 전망	13
(1) 경제성장	15
(2) 고용 및 물가	23
(3) 금리 및 환율	26
3.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국경제의 과제	33
〔 참고문헌 〕	35

표 차례

<표 1> 주요기관 2019년 세계경제전망	3
<표 2>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9
<표 3> 총지출 분야별 재원 비중	16
<표 4> 2018년 수출 동향	21
<표 5>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표 6> 2018~2019년 국내경제전망(요약)	29

그림 차례

[그림 1]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그림 2] 주요국 생산 값 추이	5
[그림 3]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5
[그림 4] OECD 경기선행지수	6
[그림 5] 달러 인덱스	11

[그림 6] 위안/달러 환율	11
[그림 7] 경기종합지수 추이	15
[그림 8] 총지출예산과 경상GDP	16
[그림 9] 소비심리지수	17
[그림 10]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17
[그림 11] 설비투자 압력 추이	19
[그림 12] 반도체 설비투자 추이	19
[그림 13] 미분양 주택	20
[그림 14] 가계의 주택 대출 수요	20
[그림 15] SOC 예산 추이	20
[그림 16] 건설투자와 건축허가면적	20
[그림 17] 취업자 증감 추이	24
[그림 18] 산업별 취업자(2018 1~10월)	24
[그림 19] 시간당 명목임금(비농전산업)	25
[그림 20] 총통화(M2) 증가율	25
[그림 21] 소비자물가 증가율	26
[그림 22]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26
[그림 23] 한·미 기준금리 추이	27
[그림 24] 생산 갭 추이	27
[그림 25] 주요 시장금리 추이	28
[그림 26] 수익률 곡선	28
[그림 27] 2018년 원/달러 환율 추이	29
[그림 28]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환율	29

1. 2019년 대외여건 전망

1. 2019년 대외여건 전망

(1) 경제성장

□ 세계경제

○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성장 둔화 전망

※ IMF, 2018년 3.7% →2019년 3.7%, OECD, 2018년 3.7% →2019년 3.5%

<표 1> 주요기관 2019년 세계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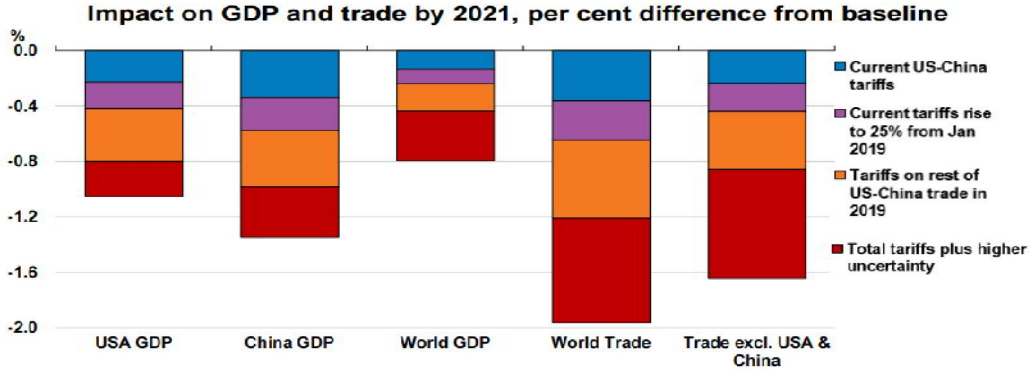
	2017년 (IMF기준)	IMF		OECD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세계	3.7	3.7	3.7	3.7	3.5
미국	2.2	2.9	2.5	2.9	2.7
유로지역	2.4	2.0	1.9	1.9	1.8
일본	1.7	1.1	0.9	0.9	1.0
한국	3.1	2.8	2.6	2.7	2.8
중국	6.9	6.6	6.2	6.6	6.3
러시아	1.5	1.7	1.8	1.6	1.5
인도	6.7	7.3	7.4	7.5	7.3
브라질	1.0	1.4	2.4	1.2	2.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8, OECD, Economic Outlook, Nov. 2018

- (미·중 무역분쟁) 무역분쟁을 넘어선 패권경쟁으로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계교역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동
 - 양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넘어서는 ‘장기 전략 충돌’의 의미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교역 감소가 지속될 우려
 - OECD 분석에 따르면, 2019년중 양국 교역에 모두 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전세계 국가의 투자리스크 프리미엄이 0.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GDP는 약 0.8%, 세계교역은 약 2% 감소될 전망

[그림 1]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자료: OECD

시나리오 1: 2018년 9월 말 현재 관세 유지

시나리오 2: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2천만달러)에 25% 관세 인상

중국은 대미국 수입 600억 달러에 보복관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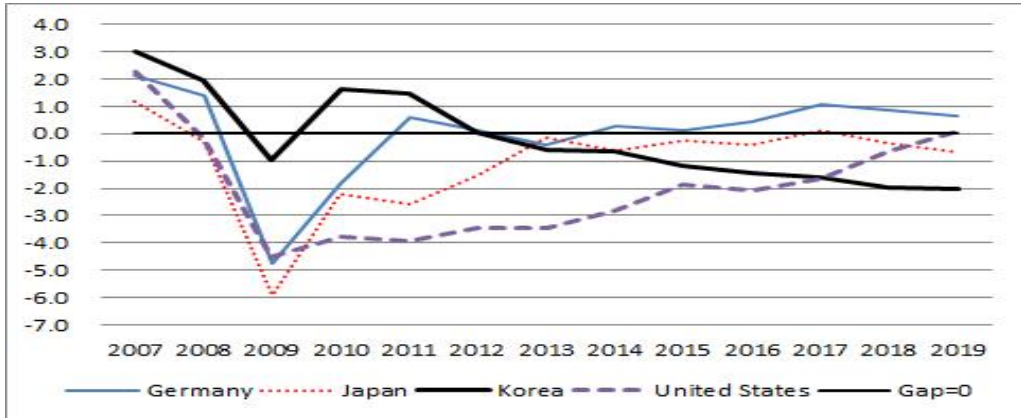
시나리오 3: 2019년 7월 이후 양국간 모든 잔여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시나리오 4: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9~21년 모든 국가 투자위험프리미엄 0.5%p 증가

- (글로벌 통화 긴축) 생산능력 확대가 점차 제약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이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기조로 전환하면 2009년 이후 지속되어온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이 약화되고 신흥국 불안도 확대될 소지
- OECD의 생산갭 자료를 살펴보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높은 (+) 생산갭을 보이거나 빠르게 (-)갭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내외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2] 주요국 생산 갭 추이

단위: deviations of actual GDP from potential GDP 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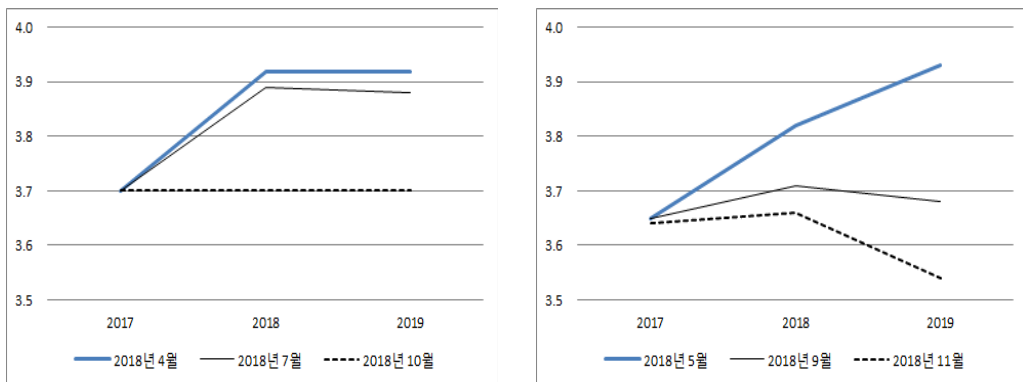


○ 성장모멘텀 저하로 성장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는 추세

- OECD 2019년 성장률, 5월 3.9% → 9월 3.7% → 11월 3.5% 0.4%p 하향

[그림 3]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8, ECD, Economic Outlook, Nov. 2018

○ OECD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 →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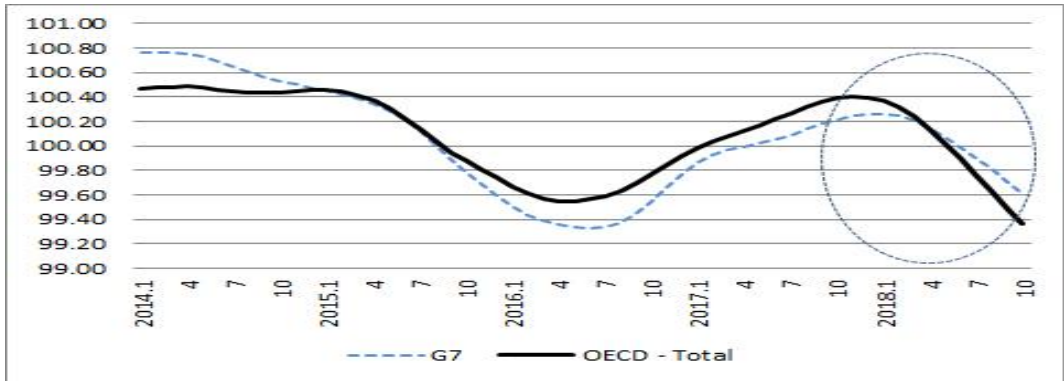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CLI:Composite Leading Index)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100 이하면 경기 하강 신호로 해석

- 10월 OECD 전체 CLI는 99.36으로 전달(99.49)보다 0.13p 하락. 지난 해 12

월(100.40)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

- CLI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세계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

[그림 4]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 주요국 경제

○ (미국) 2%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성장세는 전년대 비 둔화

- 연준의 금리인상은 최소 2차례 0.5%p가 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개편 효과가 점진적으로 약화
- 최저수준의 실업률 등 고용시장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상승은 미미
- 글로벌 위기 이후 장기 확장국면의 고점이 지났다는 분석
- 미국 10월 구매 관리자 신규주문지수(PMI)가 58.4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도 경기둔화 조짐

○ (유로지역) 통화정책 전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 소폭 둔화

- 양적완화 축소 등 통화완화 정책의 종료와 유로화 강세로 이미 소매판매

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세가 부진한 상황

- 브렉시트에 의한 불확실성 지속

- 다만, 12월 11일 신임투표에서,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결과가 나오면서 내년 3월 말로 예고된 브렉시트 추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

○ (일본) 미·중 통상마찰 피해, 소비세율 인상, 기업비용 상승 등으로 성장률 1%대 미만으로 하락

-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수출 감소

- 일본 제조업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 대미 무역 불균형 국가인 일본에게도 미국의 통상법 232조를 적용 자동차 관세인상 압박 가능성 상존

- 소비세율 인상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계획: 8%→10%

-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인상으로 큰 폭의 소비 위축 경험
- 소비세율 10%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소비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 기업비용 상승

- 인력부족으로 인한 기업비용 상승 압박
- 저임금 위주의 신규채용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개선에는 미흡

○ (중국)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정책대응 등으로 성장세가 6%대 초반으로 둔화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 불가피

- 외환보유액 3조달러 유지와 위안화 7 위안/달러 방어라는 정책적 딜레마로 위안화 가치절하를 통한 수출부양이 쉽지 않은 상황

- 부동산 시장과 기업부채 관련 구조조정 등으로 내부 리스크 증대

-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 방어 예상

□ 기타 신흥국

○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거나 선진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인도) 2016년 말 화폐개혁, 2017년 조세 제도(GST, 상품용역세) 도입 등 개혁 초기 발생했던 혼란 진정.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7%대 고성장 유지 전망

- (브라질)은 완만한 소비증가세와 원자재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8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다만 정치 불안 등으로 재정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의 회복과 함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나, 기준금리 추가인상, 부가세율 인상, 공공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서방제재,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성장률 하락 요인

(2) 국제유가

□ 내년 유가는 평균적으로 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

○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유가 약세 지속 가능성

- 다만, 이란 제재의 점진적 강화, OPEC 감산 재개 가능성 등의 강세 요인이 혼재되면서 변동성은 높아질 소지

<표 2>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유종	2017 평균	2018					2019
			1Q	2Q	3Q	4Q	평균	평균
EIA (2018.12)	WTI	50.8	62.9	68.1	69.7	60.1	65.2	54.2
	Brent	54.2	66.8	74.5	75.0	69.1	71.4	61.0

자료: EIA(美 에너지정보청)

주: ()내는 전망일자

□ 내년 국제유가 하락 전망과 관련된 주요 변수

○ (수급여건) 공급초과 상황으로 전환될 전망

- (공급) 미 셰일오일 증산 등 非OPEC 생산이 견조세를 유지하면서 OPEC 감산을 상쇄할 전망
- (수요) 무역분쟁, 신흥국 경기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원유수요 하향 예상

○ (산유국 불협화음) 감산합의에도 불구, 산유국간 이행상충 심화, 美의 시장 점유율 잠식 등으로 이행여부는 불확실

- ※ 12.7일 OPEC+(OPEC+러시아 등 10개국)는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및 유가 회복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일일 120만배럴 감산('18년 10월 생산 대비)에 합의
- 감산합의는 단기적으로 상승요인. 하지만 유가의 중기적 방향성은 감산 이행 및 공급과잉 해소 여부가 관건
 - 이란제재 불구, 사우디·러시아 등의 증산, 8개국에 대한 제재 면제(waiver) 허용 등으로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우려 제기

○ (투기유인 감소)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정상화 등도 유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 금융상품의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유선물 섹터지

선 증가를 초래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수급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낙폭은 파생상품 관련 금융요인과 관련

- 투자자 매도→ 유가 하락→ 추가 매도→ 유가 추가 하락의 악순환 초래

(3) 국제환율

□ 미 달러, 강·약세 요인이 혼재함에 따라 강보합 가능성

○ 연초 이래 지속되어 온 달러 강세기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

※ 달러인덱스: 87.5(1/31) 저점 → 97.2(12/4) 약 11.1% 상승

- 강세 요인 : 미·중 무역분쟁 지속, 미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및 여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간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시일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9년에도 달러화 강세의 주요한 요인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중 통상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긴장 장기화로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치는 약세 예상

○ 반면 추가적인 강세를 제약할 만한 요인도 적지 않아 내년중 달러 강세기조가 상당부분 약화될 전망

- 약세 요인 : 미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 조절,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약세 유도, ECB 등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달러 강세를 상쇄

-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미 금리인상 종료 논란이 부상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 미 달러화가 미 정책금리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변수들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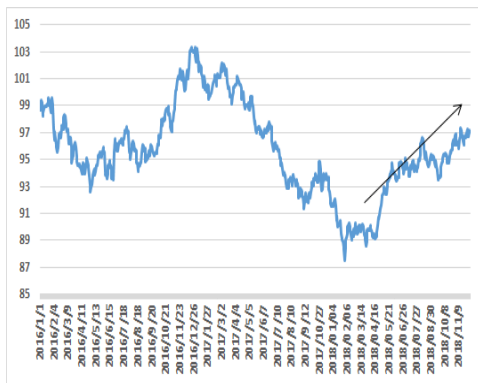
- 달러강세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요인들이 많지 않아 달러 추가 강세전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점차 증가

□ 중국 위안, 완만한 약세를 보일 전망

-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위안화 약세 기조가 지속
 - 달러/위안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을 앞두고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점이 상향
- 중국경제 여건, 중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 등을 종합할 때 당분간 위안화 가치 하락세는 진정될 전망
 - 수출둔화 위험 대응차원에서 완만한 위안화 약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역내 자금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약세 방어도 중시될 것으로 보임

[그림 5]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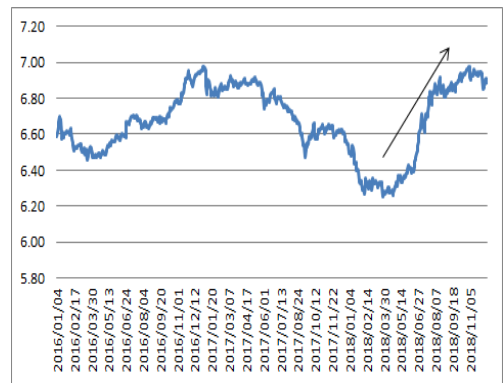
단위: 1973년 3월 =100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림 6] 위안/달러 환율

단위: 위안/달러



자료: 한국은행

주: 원/달러, 원/위안 매매기준율 이용 추정

2. 2019년 국내경제 전망

2. 2019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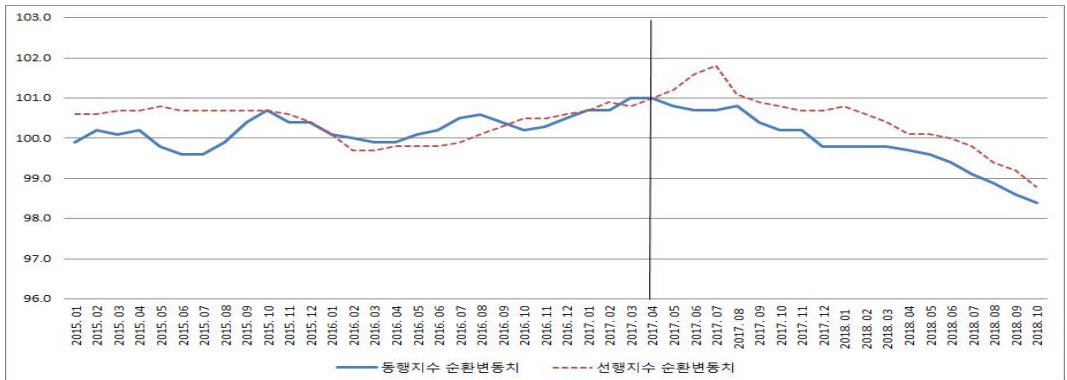
□ 대내여건

○ 2017년 4월 이후 경기하강국면 진행 중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101.0)을 정점으로 하락, 12월 이후 기준선(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경기하강 국면 진입을 뒷받침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 98.8로, 2009년 4월 이후 9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

[그림 7] 경기종합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수단도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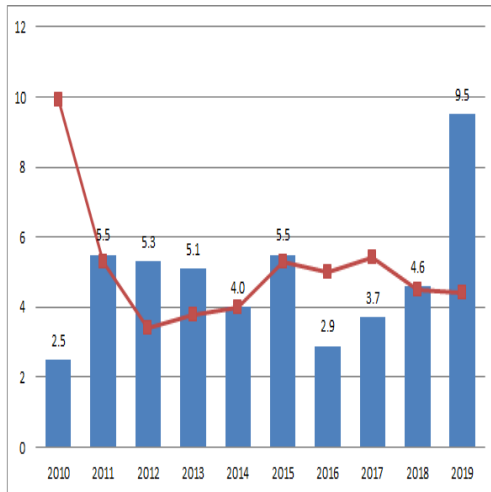
- 재정의 성장지원 한계
 -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에 비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부진 해결, 혁신성장 및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어 확장적으로 편성
- 내년 지출증가율 9.5%는 올해 수준(4.6%)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약 4.1%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의 ‘**초슈퍼 예산**’

- 재정지출이 소득 지원 등 복지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재정승수는 크지 않을 소지
 - 2019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비 11.3% 증가하면서 전체 지출 예산 대비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19년 34.3%로 2년간 2.1%p 상승
 - 반면 경제 관련 예산(산업·중소기업·에너지+SOC)의 비중은 2017년 10.0%에서 2019년에는 8.2%로 축소

[그림 8] 총지출예산과 경상GDP

단위: 전년비 %



자료: 기재부

<표 3> 총지출 분야별 재원 비중

단위: 비중 %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지출	100.0	100.0	100.0
보건·복지·고용	32.2	33.7	34.3
교육	14.5	15.0	15.0
문화·체육·관광	1.7	1.5	1.5
환경	1.7	1.6	1.6
R&D	4.8	4.6	4.4
산업·중소·에너지	4.6	3.8	4.0
SOC	5.4	4.4	4.2
농림·수산·식품	4.8	4.6	4.3
국방	9.8	10.1	9.9
외교·통일	1.1	1.1	1.1
공공질서·안전	4.4	4.5	4.3
일반·지방행정	15.9	16.1	16.3

자료: 기재부

- 통화정책은 딜레마에 빠지며 경기부양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
- 성장둔화, 고용부진,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
- 하지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3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간 금리역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국 기준금리도 1~2차례 인상이 불가피. 사실상 통화정책의 경기지원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환율정책의 경기 대응 역할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또한 한·미FTA 개정시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합의 사항이 한·미 FTA 부가합의(sub-agreement)에 포함됨으로써 경기대응 차원에서의 외환시장 개입을 스스로 제약

□ 민간 소비

○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위축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민간소비(실질) : 2018년 3.0% → 2019년 2.8%

- 경기둔화, 자산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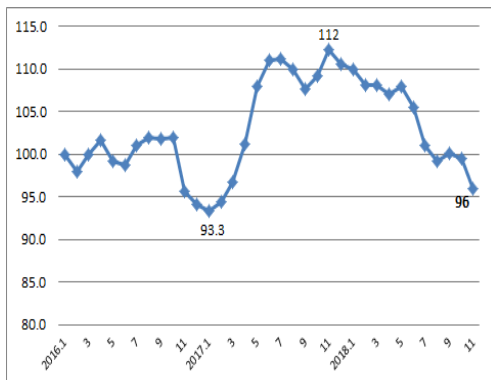
- 경기부진,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가 제한되면서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
- 주가 및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負(-)의 자산효과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 확장적 재정지출의 민간소비 보완, 확충 역할도 제한적

- 해외소비 비중이 점증하면서 국민소득의 누수(leakage) 발생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년층의 소비축소, 저축확대 성향

[그림 9]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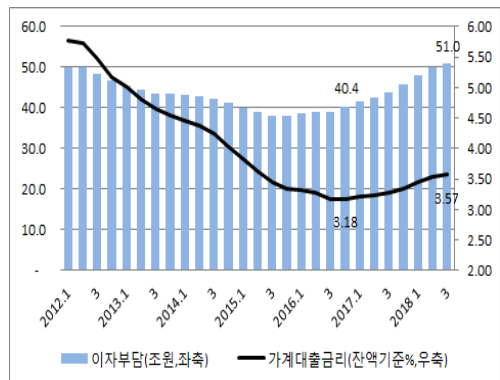
단위: 기준=100



자료: 한국은행

[그림 10]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단위: 조원, 연리%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 경기둔화로 인한 설비확장 수요 약화, 기업투자 환경 악화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설비투자(실질) : 2018년 -1.7% → 2019년 -2.1%

- 대규모 설비증설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추가 증설 요인도 많지 않은 상황

- 높은 재고율 지수, 80%대 미만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 등을 고려할 때 경제 내의 설비투자 압력은 매우 낮은 상태로 판단됨
- 그나마 투자를 지탱해온 반도체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올해 일단락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의 하향추세 전환으로 신규투자 유인 감소

-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18.0%(2017년 기준)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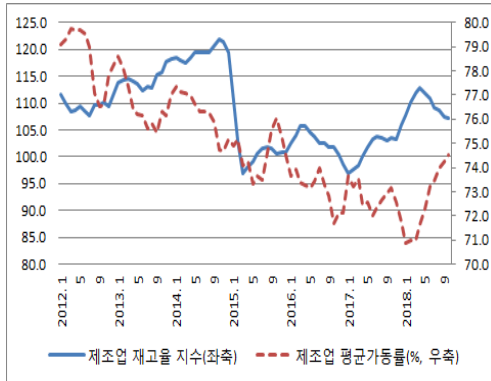
-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 역시 설비투자 하락요인. 반면 2019년으로 연기된 디스플레이 관련 대규모 투자와 정유·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증설이 내년 설비투자 위축을 방어

- 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설비투자 위축 요인

- 親노동적 정책(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 국내외 금리 상승의 본격화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비용 부담 증가

[그림 11] 설비투자 압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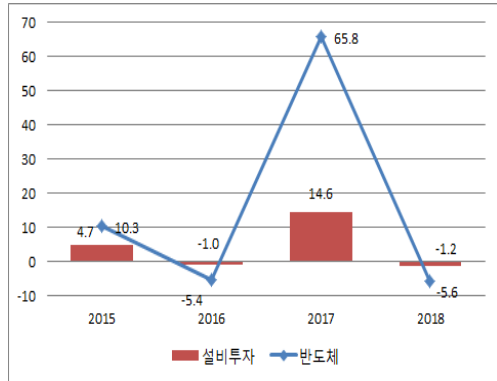
단위: 2015=100. %



자료: 통계청

[그림 12] 반도체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산업은행

□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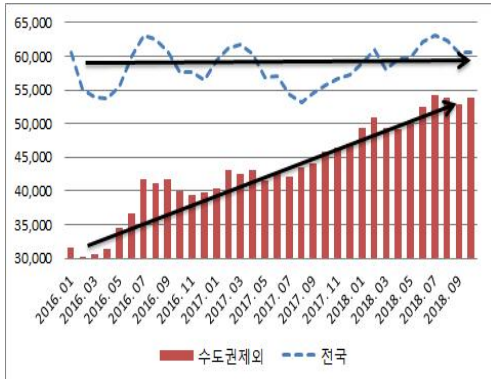
○ 마이너스 성장이 더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실질) : 2018년 -3.5% → 2019년 -4.5%

- 지난 수년간 대규모 주택투자로 물량부족이 상당분 해소
 - 전세가 하락, 지방 미분양 확대 등이 대표적 공급초과 현상
- 반면 경제 전망 하향, 주택수요 억제 정책 등으로 수요 위축
 -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도 마이너스로 전환
- SOC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토목건설 투자 역시 마이너스 성장
- 한편 건설투자와 건축허가면적의 시차상관관계를 고려한 기술적 분석의 경우, 내년까지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사
 - 건설투자와 건축허가면적의 시차상관계수는 6~7분기가 가장 높게 나오며, 이를 고려할 때 2017년 2분기 이후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 하락은 2018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3]미분양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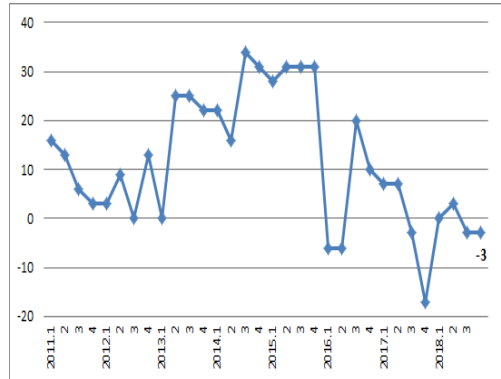
단위: 호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14]가계의 주택 대출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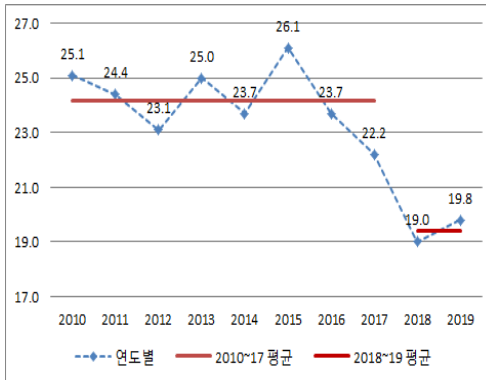
단위: 기준=0



자료: 한국은행

[그림 15] SOC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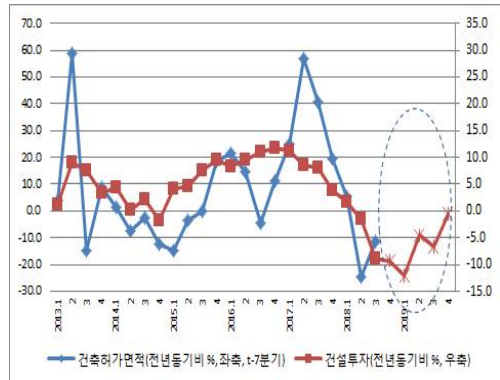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예산정책처, 기재부

[그림 16] 건설투자와 건축허가면적

단위: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는 시차상관계수를 이용한 추정치

□ 수출

○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수출 모멘텀 약화로 어려움 가중 전망

※ 수출(통관기준) : 2018년 6.2% → 2019년 3.1%

-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대중, 대미 수출 둔화

• 수출비중(2018년 1.1~11.20) : 대중 27.0%, 대미 11.8%

- 수출증가율(2018년 1.1~11.20) : 대중 17.9%, 대미 4.7%
 - 부품 및 소재 수출증가율(2018년 1~3분기) : 대중 32.1%, 대미 9.9%
- 반도체 사이클 약세,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편중’ 수출의 위기감 고조
- 2018년 1~11월중 반도체 수출비중은 21.1%

<표 4> 2018년 수출 동향

단위: 10억달러, %, 전년동기비 %

	2017년 1.1~11.20		2018년 1.1~11.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전체수출	505.0	100.0	536.9	100.0	6.3
반도체제외	420.7	83.3	423.8	78.9	0.7
반도체	84.4	16.7	113.1	21.1	34.0
자동차(부품포함)	57.2	11.3	56.0	10.4	-2.1

자료: 산업자원부

-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이 둔화하면서 한국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감소될 전망
-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 메모리 반도체 시장: 올해 1651억 달러 → 내년 1645억 달러, -0.3%¹⁾
- 이미 주요 반도체 가격은 하강국면을 보임
 - D램 현물가격(DDR4 4Gb, \$) : (2018.1)4.90 → (7)3.99 → (9)3.66 → (11)3.35
 - NAND 현물가격(MLC 64Gb, \$) : (2018.1)4.03 → (7)3.42 → (9)3.07 → (11)2.90
-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음
 - 반도체 수출(%) : (2018.1)53.3 → (7)31.6 → (8)31.5 → (9)28.3 → (10)22.1 → (11)11.6
- 중국의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요인

1)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 2018.11

□ 경제 성장률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경제는 올해 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3%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성장률: 2018년 2.6% → 2019년 2.3%

- 2019년 수출 증가세는 반토막, 투자는 마이너스, 소비는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수출부진
 -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 하강 심화
- OECD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망기관들 역시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
- 기관별 2019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
 - 국제통화기금(IMF): 2.9% (4월전망)→ 2.6% (10월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 2.8% (9월전망)→ 2.6% (11월 전망)
- 2019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속도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
 - 2.65% (8~9월 전망)→ 2.62% (10~11월 전망) → 2.45% (12월 전망)
- 정부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하향 조정

<표 5>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2018	2019
기재부(8월)	2.9	2.8
LG연(9월)	2.8	2.5
IMF(10월)	2.8	2.6
한은(10월)	2.7	2.7
예산정책처(10월)	2.7	2.7
OECD(11월)	2.7	2.8
KDI(11월)	2.7	2.6
Moody's(11월)	2.5	2.3
ADB(12월)	2.7	2.6
현대연(12월)	2.6	2.5
한경연(12월)	2.7	2.4
여의도연구원(12월)	2.6	2.3
전망시점별		
8~9월 평균	2.85	2.65
10~11월 평균	2.68	2.62
12월 평균	2.65	2.45

(2) 고용 및 물가

□ 고용

-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유의미한 고용 개선은 어려울 소지

※ 취업자수 증감: 2018년 10.5만명 → 2019년 9.5만명

- 수출증가 둔화가 본격화 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건설업 고용도 감소세로 전환

- 올 1~10월 중 건설업 취업자 증감은 4만 5천명으로 비교적 양호
- 하지만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 이후 본격 악화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감소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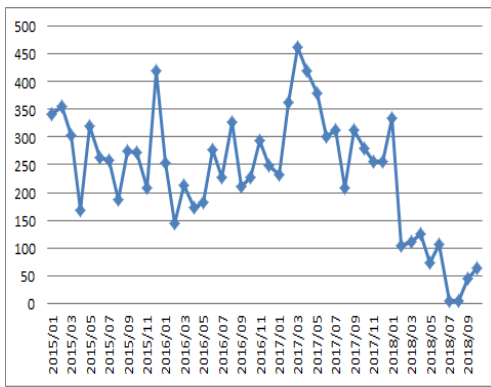
-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취업자 감소 추정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2014년)

13.9명/10억원 x 건설투자 감소액(2019년 전망치 -4.2%) 약 10.1조원 = 전년 대비 약 14만명 감소

- 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증가되면서 보건복지 등 공공 부문 일자리는 늘어날 전망
 - 올 1~10월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일자리는 각각 11만8천명, 5만 9천명 증가. 일자리 증가 수 1, 2위 차지

[그림 17]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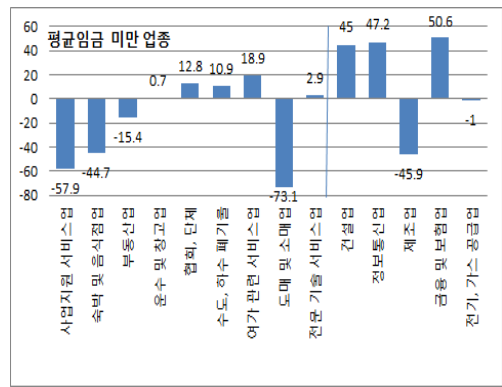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그림 18]산업별 취업자(2018 1~10월)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 소비자 물가

- 총수요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세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 목표치 2%를 하회할 전망

※ 소비자물가: 2018년 1.6% → 2019년 1.8%

- 총수요 압력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 환율 상승 등 효과를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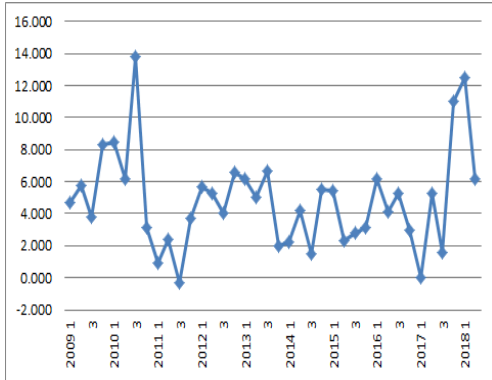
- 최저임금 상승, 총통화증가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가 여전히 1.5%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요인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

- 고용부진, 전세가격 하락 등도 총수요압력을 제한하는 요인

[그림 19] 시간당 명목임금(비농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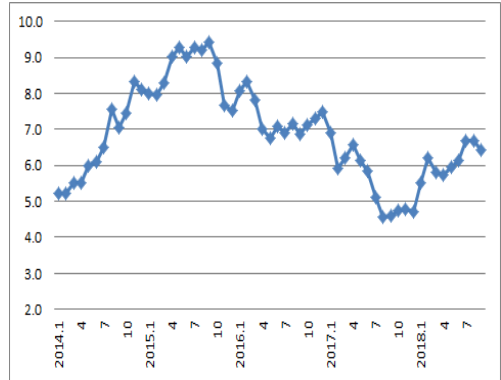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총통화(M2)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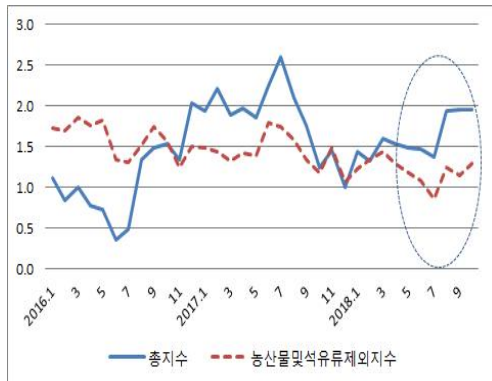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따라서 국제유가 동향이 내년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최근 물가 상승률 2%진입도 주로 기저 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 기저효과 : 2017년 10, 11월 상승률은 각각 1.8%, 1.3% 였음
- 하지만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고 11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평균적으로 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어서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 소비자물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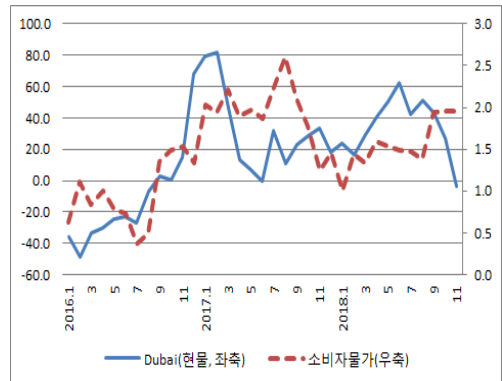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22]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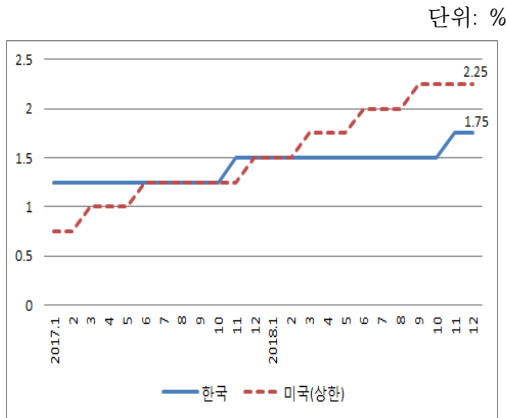
(3) 금리 및 환율

□ 시장금리

○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매우 점진적(약 0.25%p)으로 이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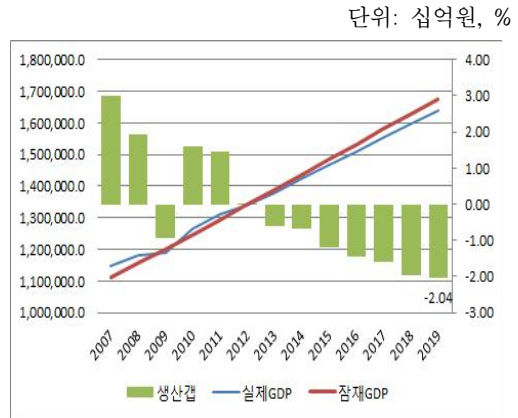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지속은 우리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요인
 -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연준이 최소 50bp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내년에도 마이너스 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이 해소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한은의 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금리인상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 경제 전망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은 성장에 부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용시장 부진과 유가하락으로 한은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그림 23] 한·미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4] 생산 갭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104 - Novemb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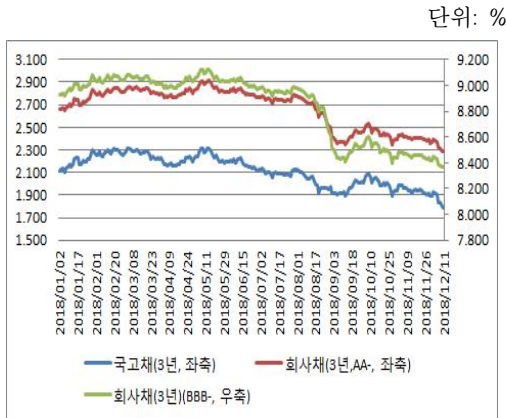
○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 국고채 3년 금리: 2018년 1.6% → 2019년 1.80%~2.00%

- 글로벌 및 국내 중장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상승 폭은 기준금리 인상 폭에 미치지 못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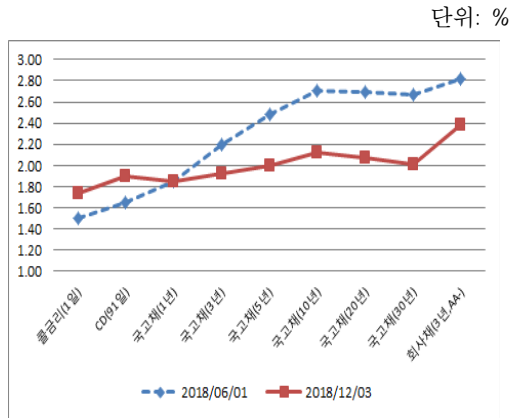
- 올 11월 기준금리의 0.25%p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 경기 전망 악화가 장기금리 상승을 제약했기 때문
- 하반기에 들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모습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화됨을 시사
 - 수익률 곡선은 보통 폭이 확대되면 경기 확장을, 좁아지면(평탄화) 경기 위축 전망을 나타냄
-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내년 국고채 3년 금리는 1.80%~2.0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5]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수익률 곡선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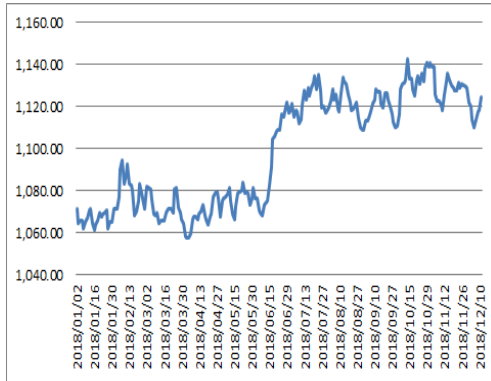
○ 달러대비 소폭 약세

※ 원/달러: 2018년 1,100원/달러 → 2019년 1,120원

- 내년 외환시장 최대 변수는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 한·미 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차이로 마이너스 금리 격차 지속
 - 유로존 등 여타 국가들도 긴축적인 통화정책 흐름으로 전환될 전망
 - 북핵 관련 양국 이견이 갈등으로 비취질 경우 외국인 불안 심리 자극
 - 2013년 이후 외국인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0.41)를 감안할 때 외국인 순매도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내년 중반 이후 달러 강세가 약화되면서 원화 약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미국 경기의 약세국면 진입, 미 금리인상 속도조절, 트럼프 행정부의 약 달러 정책 선호 등
 - 대내적으로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 심리가 과도한 원 약세를 제한

[그림 27] 2018년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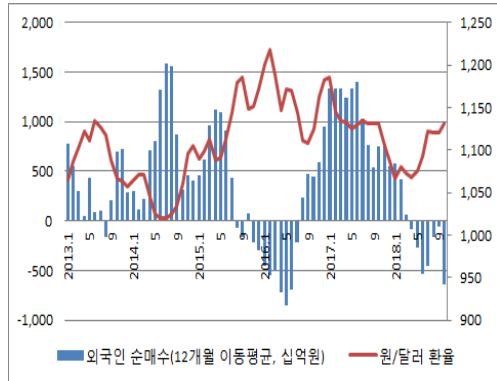
단위: 원/달러(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28]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환율

단위: 10억원,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 전망 요약

- 수출 동력 약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금리 변동 등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

<표 6> 2018~2019년 국내경제전망(요약)

	2017	2018	2019
국내총생산(전년비 %)	3.1	2.6	2.3
민간소비	2.6	3.0	2.8
건설투자	7.6	-3.5	-4.5
설비투자	14.6	-1.7	-2.1
지식생산물투자	3.0	2.4	2.9
재화및서비스 수출	1.9	3.5	3.2
재화및서비스 수입	7.0	1.0	-1.1
소비자물가(전년비 %)	1.9	1.6	1.8
취업자 증감(천명)	316	105	95
국고채 3년 금리(%)	1.8	2.1	1.9
환율(원/달러)	1,131	1,100	1,120

자료: 여의도 연구원

3.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국경제의 과제

3.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국경제의 과제

□ 단기 총수요정책

○ 당장은 예상되는 핵심 리스크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수요측면에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 그나마 올 성장을 버텨준 것은 수출.
-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대한 기업 지원 노력이 필요

- 투자 회복 시급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높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
- 기업은 규제·적폐 대상이 아닌 성장·고용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수
- 건설투자는 좀 더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거래 정상화를 회복하여 과도한 위축도 방지해야 함

-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

- 진정한 소비진작책은 인위적 임금상승이 아니며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쉬운 고용여건을 만드는 것임
- 당장 내년부터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고용급감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

-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비한 금융 및 외환부문 안정성 확보

- 한미간 금리차와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한 만큼 우선은 모니터링에 주력하면서 이후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

- 대북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애매한 입장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금리차보다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 중장기 성장잠재력 정책

○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급선무

- J 노믹스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실험은 예상대로 경제 파탄을 초래
 - 실업률은 17년來 최악으로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 폭은 1/3로 축소
 - 생산, 설비투자 등 모든 거시지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
 - 무분별한 복지확대, 최저임금지원, 공무원 증원으로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
 - 진척 없는 ‘혁신성장’ 정책은 미래 성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방향이 옳다면 시차 효과를 감안하며 인내할 수 있음.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새로운 실험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Back to the Basic)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을 대체하는 경제정책 비전으로 ‘i 노믹스’ 를 제시
 - i 노믹스의 ‘나’ 를 뜻하는 i는 idea(아이디어),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 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포괄
-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하도록 하는 것
 - 국가는 시장경제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에 국한
- 규제, 나태, 의존에 발목이 잡혀 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마음껏 뛰도록 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성장정책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9년 총지출은 정부안(470.5조원) 대비 △0.9조원 감액된 469.6조원, 보도자료, 2018.12

김창배, 자유한국 i 노믹스(inomics) 해설, IB2018-23, 여의도연구원, 2018.12

김현욱,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SERICEO, 경영의 맥, 2018.12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 2018.11

오정석·김희진, '19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 Resume of Oversupply?, 국제금융센터, 2018.12

주원, 2019년 한국경제전망, 여의도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 자료, 2018.12

한민수, 2019년 세계경제전망, 여의도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 자료, 2018.12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2018.9

OECD, Economic Outlook No 104 - November 2018, 2018.11

EIA(美 에너지정보청),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 2018.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8, 2018.10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ADO) 2018 Update, 2018.9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Supplement , 2018.12

여연정책연구 YDI Report (YR2018-03)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인 쇄 2018년 12월 20일
발 행 2018년 12월 20일
발행인 김선동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전 화 02) 6288-0502
팩 스 02) 6288-0558
인쇄처 원기획

여의도연구원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정책연구」의 전문은 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